

세계적 스포츠행사인 운동회

■ “관객이 선수로, 선수가 관객으로”

우리는 체육대회라는 스포츠이벤트를 아주 자연스러운 행사로 생각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서양에서 벌어지는 스포츠이벤트는 대개 종목단위의 경기이거나 선수와 응원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우리가 흔히 즐기고 있는 체육대회와 같이 관객들 중에서 선수가 선출되고 선수가 종목에 따라서는 관객이 되기도 하는 쌍방간의 이벤트가 오히려 흥미가 있는 것 같다.

체육대회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경기를 할 때는 운동장같이 넓은 장소를 마련하고 그

곳이 관객석으로 둘러싸이고 한편에는 선수가 대기하는 등 매우 분주한 모습이 보여진다. 경기종목도 가장 단순한 달리기를 비롯하여 줄다리기, 공넣기, 장애물경기 등 다양하게 준비된다.

■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움

이러한 다채로운 종목에 함께 참여하여,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은 달리기 선수로 활약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마련함으로써 각자의 기량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운동경기를 위한 시설물을 손수 준비하는 등 예를 들면, 장애물 경주에서 장애물을 설치하는 보조자로 참여하는 사람은 직접 경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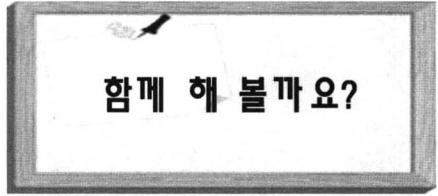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별적 종목들의 점수를 그룹대항전으로 전개하게 되면 자신들의 팀을 위해 열심히 응원전을 벌이면서 일체감이 생기고, 결과에도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운동경기의 주종목은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팀대항으로 펼치는 릴레이. 관객석의 흥분과 함께 운동장 전체가 환호속에 둘러싸인다.

대체로 마지막 경기는 팀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을 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각 팀마다 전원이 열을 만들어 큰 공을 머리를 이용하여 옮기거나, 골까지 빠르게

웁긴다거나, 각 팀마다 색다른 풍선을 매달고 돌아오는 경기 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기를 마치면 팀의 득점수에 따라 우승팀에게는 그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는데, 우승자에게만 포상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 등을 준비하여 되도록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참가자가 관객으로 또 선수가 되어 각자가 운동에 참가하여 즐거움을 갖는 동시에 전체적 일체감을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들이 직장에서의 레포트로서 체육대회가 지속되어 가는 큰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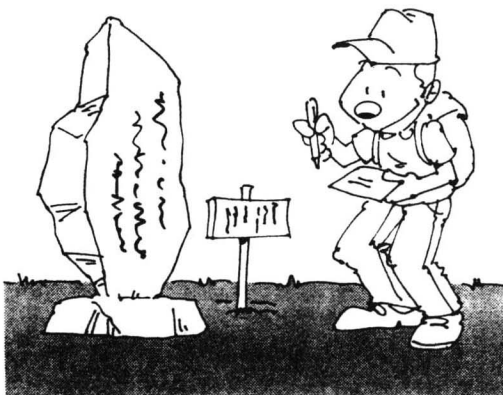


■ 거리 답사를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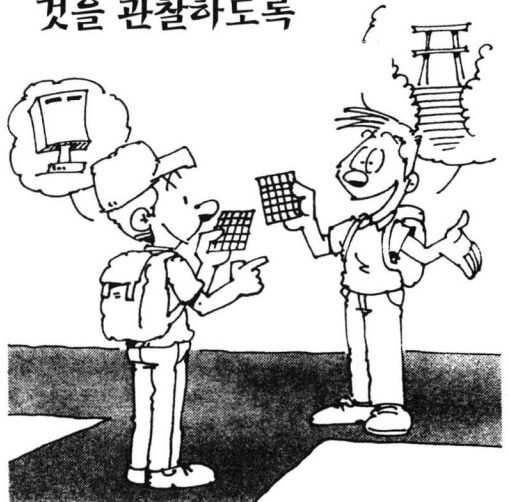
거리 답사는 독특한 코스의 약도를 가지고 지시한 대로 길을 따라서 그룹으로 짝지어 거리를 탐색하는 게임. 5~10킬로미터 정도의 코스를 미리 정해진 시간(규정시간)에 얼마나 가깝게 골인하는가로 시간득점을 겨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정시간이 2시간이라면 2시간 1분에 골인을 하거나 1시간 59분에 골인을 하든 모두 1분의 오차로 마이너스 1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코스 도중에는 답사포인트가 설정

코스 지도에 따라서 즐겁게 걸어보자



관찰구역에서는 모든 것을 관찰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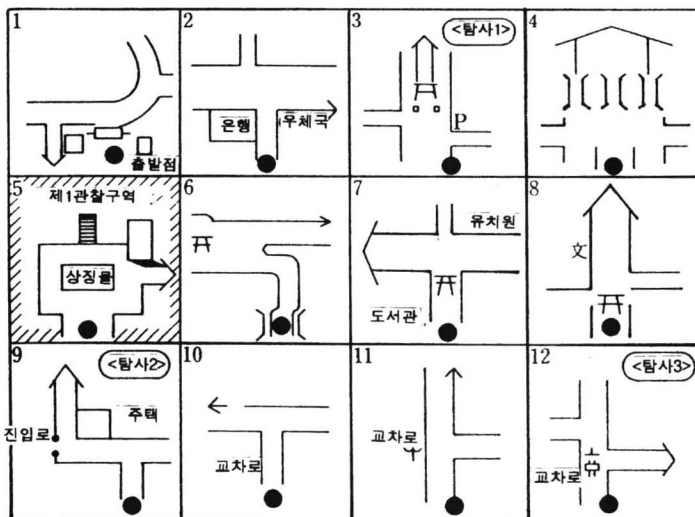
되어 있으며, 그 장소에서는 어떤 과제가 출제되어 있다. 거리의 표지판이나 안내도, 또는 큰 건물의 상징물이나 다리 등 어떤 특징적인 건조물에 관한 높이, 무게, 재질, 안내 내용이나 글씨 등 모든 것들과, 이에 더 추가한다면 주변의 나무 등 자연에 관한 것, 백화점의 과일 판매대에서 과일가격 등, 사회생활과 관계되는 것 등, 출제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과제를 정확히 수행하고 시간에 맞추어 얻어지는 득점의 합계로 순위를 정하게 된다.

거리 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코스를 작성해야만 한다. 출발, 도착지점을 정하고, 대략적 영역을 결정하여 새로 발견해야 하는 흥미있는 표적지를 찾아 가도록 하며, 안전성, 코스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코스를 작성해 둔다.

코스를 그린 지도의 특색은 도로의 형태와 현재 위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장소들만 모아 연결해 두도록 한다. 도로의 형태는 분기점 5m전 정도부터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그려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를 특정지을 수 있는 우체국, 신호등 등의 눈에 띄는 표시물을 코스지도에 그려놓는다.

출발은 그룹마다 1~2분정도의 차이를 두고 출발시킨다. 출발시간을 그룹마다 회신용지에 기입해 두고 도착시에 도착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여 오차를 계산한다. 과제득점 산출은 채점이 필요하며, 따라서 순위를 정할 때는 참가자수에 의한다거나 1시간정도의 여유를 두는 편이 좋다.

코스,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응용을 하여 간단하게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넣어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勞動衛生에서〉